



오동진의 씨네카페

3년만에 신작 '괴물'낸 봉준호 감독

“한국적 괴물’ 만드는 데 최선”

지난 달 열린 칸국제영화제에서 비경쟁부문인 ‘감독주간’에 상영돼, 세계 평론가들로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봉준호 감독의 신작 ‘괴물’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봉준호 감독과 이 영화의 제작사 청어람(대표 최용배)은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작보고회를 갖고 칸을 포함, 그동안 해외에서 미리 거둔 성과와 함께 영화의 일부를 공개했다. 7월14일 개봉예정.

- ‘살인의 추억’ 이후 3년만이다. 새작 품 개봉을 기다리는 소감은?
▲하루라도 빨리 국내 관객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어 마음 속에서 안달이 났다. 내 영화, 내 인물로 이렇게 얘기해서 잊히지만 이번 영화 정말 재미있다. 끊임이 볼 얘기도 많다. 어서 빨리 자랑하고 싶다.
- 칸국제영화제에서 정말 큰 화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에서 상영된 버전은 완성된 버전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월드 프리미어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 칸에서 공개된 1시간 54분 길이는 그대로지만 음향과 컴퓨터 그래픽을 다시 손보고 있다. 물론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좋은 평가를 얻어 기분 좋다.
- 왜 괴수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나.
▲사실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다. 왜 하필 이무기 영화 같은 걸 하려고 하나. 영화 경력에 오점을 남기고 싶다는 등도 많고 편견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편견들이 오히려 자극제가 됐다. 왜 괴수영화를 했나? 난 늘 새로운 얘기, 새로운

소재의 영화를 만들고 싶을 뿐이다.
- 영화속 괴물의 모습이 미국, 일본의 괴수영화 못지않다.
▲하지만 이 괴물은 한강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리우드에서 흔히들 만 들어지는 비현실적인 괴물의 모습이 아니길 바랐다. 영화의 배경은 우주도 지구 지라도 아니고.. 이 괴물을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둔 게 ‘영화 스토리에 충실한 괴물’이라는 것이었다. 도시민의 삶 을 다루니까 괴물의 이미지도 도시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영화의 괴물은 63빌딩을 때려 부수는 크기면 안 된다.(웃음)
-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나?
▲고등학교 때 잠실 근처 아파트에 살았는데 내 방 창문으로 잠실 교각이 보였다. 한창 사춘기라 창을 멎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았는데 어느 날, 정말 어떤 검은 물체가 교각 기둥을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다 떨어지는 걸 봤다. 그게 이 영화의 최초 아이디어가 됐다. 원래 어릴 때부터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거 많이 봤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영화의 괴수는 신화 모드가 아니라 현실 모드다.
- ‘괴물’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영화는 말 그대로 괴물영화가 아니라 괴물과 싸우는 가족의 이야기. 한 가족이 괴물과 싸우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가족을 괴롭히는 게 괴물인지 아니면 그런 사회인지 묻고 있는 셈이다. 여름철 액션영화로 손색없는 영화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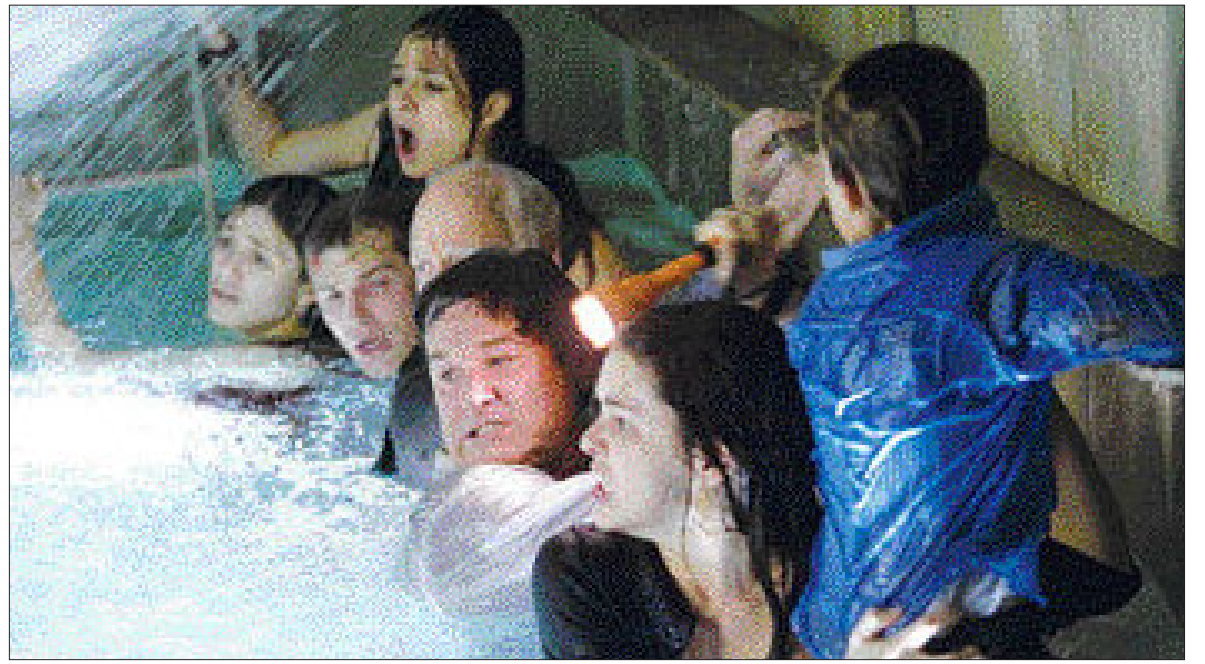
■ ‘괴물’은 어떤 영화?

한강의 괴생물체-도시민 가족의 혈투

‘괴물’은 일종의 괴수영화다. 괴수영화라면 심형래 감독이 만든 ‘용가리’를 제외하고 국내에서는 거의 기반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르다. 그나마 ‘용가리’는 특수효과 면에서만 거론되는 작품이다. 그에 비해 봉준호 감독의 이번 괴수영화는 우리사회와 인류문명에 대한 반성적 비판의식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야기의 중심축은 한강에 나타난 괴생물체에게 딸을 빼앗긴 사내 박강두(송강호)가 그의 가족과 함께 딸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것.
괴물과 사투를 벌이는 도시민 가족의 삶에 집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더 나아가 한국과 미국의 ‘기묘한’ 관계, 불합리한 정치 구조에 대한 인식에 이르게 한다. 영화 ‘괴물’ 속의 괴물은 미국이 버린 오염물질에 의해 만들어진 돌연변이로 설정돼 있다. 이 괴생물체를 만들기 위해 봉 감독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김봉’의 특수시각효과를 맡았던 뉴질랜드 웨타 워크샵과 손을 잡았다.



영화 ‘괴물’이 최근 제작보고회를 갖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괴물’ 출연진.



〈포세이돈〉

‘미션 임파서블3’ ‘다빈치 코드’ 이어 ‘포세이돈’ 까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한국 강타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3’가 지난 5월 4일에 개봉된 이후 한국 영화시장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의해 씩씩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향후 1,2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미션 임파서블3’ 말고도 순차적으로 개봉된 ‘다빈치 코드’ ‘포세이돈’ 등이 전국 극장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엑스맨 : 최후의 전쟁’을 비롯, ‘슈퍼맨 리턴즈’ 등이 시장을 휘어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이 같은 막강 파워에 따라 지난 1,2년간 박스오피스에서 졸풍 상위권을 차지해 왔던 한국영화들은 대부분 하위권으로 밀려난 상태다. 곧 ‘상위권=한국영화, 하위권=외국영화’의 공식이 ‘상위권=할리우드 영화, 하위권=한국영화’

의 공식으로 전도된 것.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주간의 박스오피스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지난 주 박스오피스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할리우드 영화들이었다. 그 전주에는 1위부터 4위까지가 할리우드 영화들. 그러니까 여름시즌이 본격화 되면 될수록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지난 주 상위 5위를 점했던 할리우드 영화들은 1위인 ‘포세이돈’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헛지’ ‘다빈치 코드’ ‘미션 임파서블3’ ‘오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미션 임파서블3’의 장기독주에 눈에 띈다. ‘미션 임파서블3’는 개봉 6주째를 지나고 있으며 개봉 5주째였던 지난 주까지 전국적으로 56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았다.

600만 관객 돌파는 시간 문제. 최근 할리우드 작품 가운데 보기 드문 ‘대박’으로 기록되고 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급상승 무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나친 일회성 비는 역효과만 불러 일으킬 뿐 진정한 사대 파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여름시즌은 할리우드가 독차지해왔던 게 사실이고, 다만 지난 2,3년 동안 여름철조차 할리우드 영화들이 기를 못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올 여름의 할리우드가 유독 강세를 띠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두달의 잠세 변화를 좀더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한국영화시장의 판도 변화가 정확히 읽혀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의 영화계 이슈

가장 논쟁적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24시간을 그린 멜 깁슨의 2004년작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100여 년에 걸친 미국 영화사상 가장 논쟁적인 작품으로 선정됐다.
미국 연예전문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16일자)에서 ‘영화 사상 가장 논쟁적인 25편’을 발표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1위로 꼽았다. 예수가 채찍형을 당하는 모습을 끔찍하리만큼 생생하게 묘사했던 이 작품은, 성경구절에 충실하다

는 명분으로 유대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종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고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종교 논란을 불러 일으킨 ‘다빈치 코드’의 경우 전체 순위 가운데 13위에 올랐다.
가장 논쟁적인 영화 2위로는 스탠리 큐브릭의 71년작 ‘시계태엽 오렌지’가 올랐다. 미래사회에서 심대 불량배들이 뮤지컬 영화 ‘싱 인 더

레인’의 주제곡을 틀어놓고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 등 폭력적인 장면들로 관객들에게 충격을 던졌다.
3위는 미국 보수 우파를 신랄하게 공격한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가 차지했으며 4위는 최초의 극장배급 포르노 영화 ‘딥 스토트’, 5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을 음모론적 관점에서 파헤친 ‘JFK’가 올랐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

시몬스 매트리스의 다양한 모델과 특징을 소개하는 광고입니다. 편안한 수면을 위한 최고의 선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인정신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

TOUCH 브랜드의 다양한 사무용 의자, 책상, 소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문 생산업체의 품질을 자랑하며,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제공합니다.